

# 손아섭 잔류에 '안도의 한숨'

강민호 농친 롯데, 손아섭 붙잡는데 성공... 4년 총액 98억원 FA 계약 체결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자유계약선수(FA) 손아섭(29)을 붙잡는데 성공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프랜차이즈 스타인 강민호(32·삼성 라이온즈)를 잔류시키는데 실패했지만 또 다른 간판 스타의 유출을 막았기 때문이다. 롯데는 28일 손아섭과 계약기간 4년, 총액 98억원에 FA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계약기간 4년, 총액 98억원에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체결한 손아섭.

롯데는 2017시즌을 앞두고 일본으로 떠나기 전까지 간판 타자로 활약한 이대호(36)를 친정으로 복귀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대호의 영입에 롯데 팬들은 반색했다. 하향세를 그리는 롯데 관중 수는 올해 확연히 늘었다. 하지만 최근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불박이 포수인 강민호를 잡지 못했다. 올 시즌을 마치고 FA가 된 강민호는 지난 21일 삼성과 계약기간 4년, 총액 80억원에 계약을 맺고 롯데를 떠났다. 롯데도 같은 금액을 제시했지만, 강민호는 이적을 택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이대호 영입에 성공했지만, 롯데는 그간 내부 FA 단속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했다. 주축으로 활약하던 김주찬(KIA 타이거즈), 장원준(두산 베어스)을 놓치기도 했다. 강민호까지 떠나면서 롯데는 팬들의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손아섭까지 놓친다면 롯데는 전력상으로도 내년 흥행에도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했다.

특유의 근성있는 플레이로 팬들에게 사랑받는 손아섭이다. 강민호가 떠나 후로 손아섭 잔류는 롯데에게 '필수'가 됐다. 발 빠른 중장거리형 타자에 '히어로' 근성까지 갖춘 손아섭을 노리는 구단은 적잖았다. 게다가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까지 있었다. 2년 전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했던 손아섭에 관심을 보이는 빅리그 구단이 있었다. 지난 10월과 11월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손아섭에 대한 신분조회 요청이 있었다. 롯데는 거액을 제시해 손아섭을 붙

잡았다. 4년 98억원은 지난해 롯데와 4년 150억원에 계약한 이대호, KIA 타이거즈와 4년 100억원에 도장을 찍은 최형우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손아섭은 꿈보다는 실리를 택했다. 롯데에서 우승을 맛보고 싶다는 마음도 잔류를 결심하게 했다. 손아섭은 "롯데에 지명되고 지금까지 다른 팀에서 뭘 것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메이저리그 도전이라는 꿈보다 우리 팀의 우승이라는 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 맨시티, 원정 신기록 '11연승' ... 잉글랜드 축구사 다시 쓴다

맨체스터 시티가 잉글랜드 축구사를 다시 썼다. 맨시티는 27일(한국시간) 영국 허더스필드의 더 존 스미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2018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허더스필드 타운과의 경기에서 2-1로 이겼다. 맨시티는 전반 추가시간 니콜라스 오타멘디의 자책골로 끌려갔지만 후반 2분 세르히오 아게로의 페널티킥과 후반 39분 라힘 스털링의 결승골로 역전승을 거뒀다. 허더스필드를 무너뜨린 맨시티는 공식경기 원정 11연승의 휘파람을 불었다.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다. 끈질긴 악연에도 마침표를 찍었다. ESPN에 따르면 맨시티가 원정 경기에서 전반전을 패한 뒤 후반에 승부를



뒤집은 것은 1995년 4월 이후 22년 7개월 만이다. 승점 사냥에서도 독보적이다. 12승1무를 거둔 맨시티는 승점 37로 2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승점 29·9

# 랭킹 1199위 황제 컴백 주목

## 타이거우즈 내달 1일 PGA투어 이벤트 대회 '히어로 월드 챌린지' 출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2·미국)는 지긋지긋한 허리 부상을 털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달 1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바하마 알바니 골프클럽(파72)에서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이벤트 대회 '히어로 월드 챌린지'(총상금 350만 달러)가 열린다. 타이거우즈재단이 주최하는 대회는 PGA 정규 대회는 아니지만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미국)을 비롯해 저스틴 토머스(미국) 등 톱랭커가 출전한다. 작년 이 대회 우승자와 4대 메이저 대회 우승자, 세계랭킹 상위 11명, 재단 추천 선수 2명 등 18명이 컷 탈락 없이 경쟁한다. 이벤트 대회지만 세계랭킹 포인트를 부여한다. 우즈는 호스트 자격으로 참가한다. 지난 2월 유러피언투어 '오메가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 라운드 기권 이



후 9개월 만의 복귀 무대다. 지난 4월 또 허리 수술을 받은 우즈는 최근 건강을 되찾은 뒤 복귀를 위해 연습량을 늘리고 있다. 27일에는 대회가 열리는 바하마 알바니골프장에서 캐디 조 라카버와 카트를 이용해 2시간여 가량의 연습라운드를 돌았다. 연습을 마친 뒤 우즈는 미국 골프매체 '골프채널'을 통해 "풀 스윙을 하고도 허리에 통증이 없다. 지내온 몇 년과 비교한다면 실로 놀라운 일"이

리면서 "연습라운드를 치렀으나 통증은 없다. 통증이 없다면 내 인생은 훨씬 나아질 것"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2015년 8월 '원펀 챔피언십' 이후 2년 3개월 동안 단 2개 대회 출전에 그친 우즈는 이번주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1199위까지 떨어졌다. 이번 대회를 최하위로 마치지만 해도 랭킹을 200계단 이상 끌어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우즈가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에도 복귀전을 앞두고 연습 장면을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하는 등 지난해와 비슷한 복귀 수순을 밟고 있다.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고 정상급 선수들과의 대결이 기대되며 호기롭게 성공적인 복귀를 다짐했다. /뉴시스

# 동계패럴림픽 D-100

## '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 내달 1일 개최

행정안전부는 2018동계패럴림픽 100일을 앞두고 '2017 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을 다음달 1일 강원 춘천 강원대학교 내 백령아트센터에서 연다. 올해로 3회 짝을 맞는 행사는 249만 명의 장애인들에게 문화경연을 통한 정서함양과 함께 지역사회와 장애인 간의 따뜻한 문화적 소통, 사회적 자립의지 제고를 위해 매년 연말에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올해 4~9월까지 17개 자치단체의 예선을 거쳐 선발된 지적·지체·자폐·시각·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총 16개 팀의 난타, 밴드공연, 한

국무용, 합창, 연극, 민요, 사물놀이 등 다양한 장르의 경연이 치러진다. 또 강원도와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돗토리현과 몽골 튜브도의 장애인 공연단과 지난해 우승팀인 경남 해림학교 드림팀의 축하공연이 마련된다.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D-100일을 기념해 홍보 이벤트존을 공연장 실내·외에 마련해 '수호랑캐릭터' 포토존, 2018 평창동계 패럴림픽 종목 체험공간, 가상체험(VR) 등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뉴시스

이날 행사에는 전국 17개 시도 공연단과 관계자 900여 명과 행정안전부 심보균차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장석준 상임대표와 본행사 후원기업인 신한은행 왕태욱 부회장 정기영 한국장애인부모회장 등 전국단위 장애인단체장 등이 참석해 관계자를 격려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행사는 정부기관, 자원봉사단체, 기업의 사회공헌, 재능기부 등이 합쳐 만들어진 전국 규모의 유일한 장애인 문화경연·소통의 장"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전주여고,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플로어볼 대회 우승

전주여자고등학교(교장 송인순) 플로어볼 스포츠클럽이 지난 24일~26일 경기도 포천에서 개최된 2017 학교스포츠클럽 플로어볼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주여고 플로어볼 스포츠클럽(지도교사 윤석천, 이상락)은 이번 대회에 전북대표로 참가하여 예선에서 전남 삼계고와 4:1로 승리, 세종 한솔고와 1:1로 비겨 1승 1무의 성적으로 조 1위로 8강에 진출 후 8강에서 대전 서대전여고를 2:1로 누르고 준결승전에 서 작년 우승팀 충남 천안 업성고에

1:0으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결승에서는 작년도 준우승 팀 서울 혜화여고를 맞아 절정의 경기력을 선보이며 4:1로 대파하며 우승의 자리에 올랐다. 또한 3학년 오현정 학생은 결승전에서 2골을 넣는 등 탁월한 기량을 선보여 여고부 최우수선수로 선정되어 기쁨을 더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별 지역 선발전을 거친 초·중·고 플로어볼 대표 학생 1,400여명의 선수가 시도 대표로 출전해 학교와 지역

의 명예를 걸고 열띤 경쟁을 펼쳤다. 한편 전주여고 플로어볼 스포츠클럽은 2006년에 창단되어 인성실천 함양과 어우러진 신체활동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인문계 고교에서 등한시 될 수 있는 여학생들의 적극적인 신체활동 참여를 통한 학교체육의 모델 명문고로 인정받고 있다. 이상락 체육교사는 "이번 성과는 평상시에는 학업에 열중하면서 방과 후에 집중력 있게 연습에 몰두해 온 학생들의 강한 정신력으로 이루어 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